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5.04.18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채권/부동산 02-3779-3184, e.shin@sangsanginib.com

Analyst 황준호 | 시황/ETF 02-3779-3186, jh.hwang@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퀀트/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주식	6
2. 채권	11
3. 외환	13
4. 원자재	15
5. 부동산	17
6. ETF	18
7. 디지털 자산	21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갈대와 같은 트럼프 마음→변동성 국면

계속해서 확대되는
변동성 자산시장의

넌뛰기 장세에 접어들었다. 넌뛰기는 상호 작용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그 폭이 쉽사리 예측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적이다.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시행과 중국 제외 유예로 인한 금융 및 자산시장의 출렁임에 방향성 예측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자산의 평가 손익은 말 그대로 유한하다. 추세성에 대한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기에 대응은 어렵다. 이같은 국면에서는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낮춰 잡을 필요가 있겠다. 정책에는 명암이 존재하기에 정책의 적용 여부라는 트럼프의 의중을 알 수 없다면 그 명암에 대해서도 국면 마다 상이한 영향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일부 수정되었으나 마중 협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관세 정책
국면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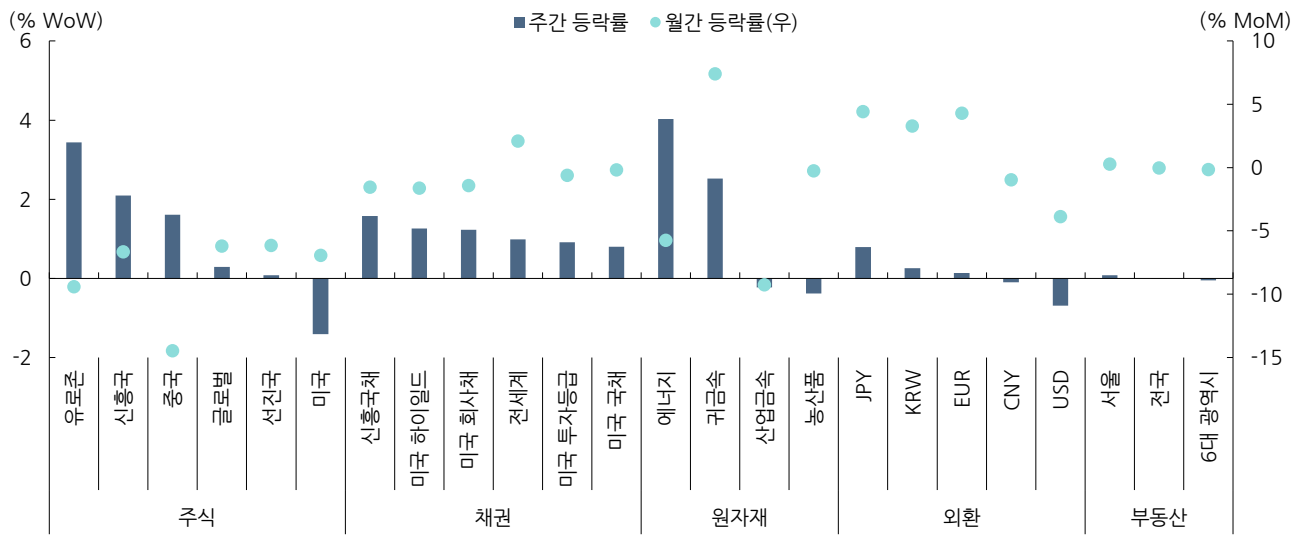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투자 및 실물 경제 모든 측면에서 타국이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시, 이를 되가져오겠다는 정책은 공격적이고 거친 흐름은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주체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의 효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추진하는 트럼프의 일련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은 은연 중에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상대 탓 또한 시작되었다. 지속적으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려는 멘트가 나오는 중이다.

미 중 양국의 정치적 입장과 체제 차이가 존재하기에 쉽사리 top-down 방식의 협상 테이블이 차려 지기는 쉽지 않다. 빨라야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이고 그 다음 일정은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이다. 최소 4~5개월의 베퉁 끝 밀고 당기기는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의 속도 조절 발언이 있는 익일에는 재차 트럼프의 파월 비난 발언이 나왔다. 임기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재차 해임을 해야하겠다는 발언으로 입장이 선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관세정책 형국임을 반증하는 모습이다.

한동안 현재의 흐름은 지속될 것

차주 역시 현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을 주간으로 전망한다. 월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물가, 생산 및 소프트 데이터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연준의 5월 FOMC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5월의 금리 조정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 즉, 시장에서의 주된 가격 변수로 작용 중인 트럼프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게다가 유예까지 한 관세 정책으로 하여금 그 영향력 판단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시장의 트럼프 발언 민감도는 더 높아지면서 그 피로도에 따른 영향력이 보다 중요해지겠다. 트럼프의 약점이 증시보다는 채권 및 외환시장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만큼 투심의 회복에 의해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및 달러의 중립선 내외의 횡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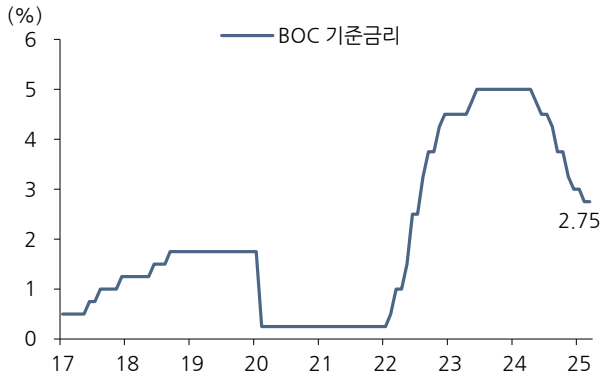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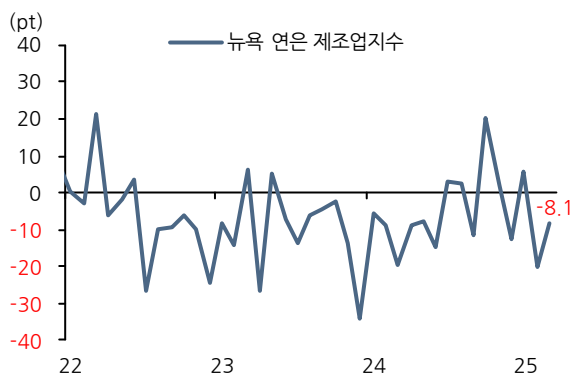
그림 1.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금융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8회의 만에 그대로 유지, 2.75%로 동결
- 중앙은행은 2024년 6월 이래 전월까지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인하. 중앙은행은 2022년부터 지속한 양적긴축(QT)을 앞서 종료하기로 결정
- 미국 고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한층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히 금융정책을 결정해 나갈 방침
- 한편 미국의 추가관세 발동으로 회복기조에 있던 캐나다 경제에 둔화 우려는 확산

그림 2. 미국 뉴욕 연은 4월 제조업지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4월 뉴욕주의 제조업지수(엠펙아이스테이트지수)는 -8.1로 전월(-20.0)대비 11.9pt 상승
-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이나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한편 재고지수는 7.4로 재고는 증가세
- 뉴욕 연은의 경제 연구 고문 리처드 다이츠는 지난 달 급락 이후 뉴욕주의 사업 활동은 4월에도 소폭 위축세를 이어갔다고 발언
- 미래 사업 활동 지수는 -7.4로 전월 대비 20.1pt 하락, 이는 2022년 이후 첫 마이너스인 수치로 기업의 향후 6개월 전망이 비관적임을 의미

그림 3.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4%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망한 5.1~5.2%를 상회
- 성장률 견인의 주요 요소로는 지난 3월 수출액의 12.4% 급성장으로 꺾이며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며 2021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냄
- 다만,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시행을 앞두고 물량을 앞당겨 출하하며 나타난 단기적 부양 효과라는 시선.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책의 효과는 고무적

1. 주식

완화된 관세 정책 하방 압력에 상승세를 시현한 비미국 증시

국내 증시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면제받는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세 시현

KOSPI는 전주대비 +1.55% 상승한 2,470.41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2.32% 상승한 711.75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245%,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1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후 양국 모두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 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과 태양광 소재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사실상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점이 증시에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면서 주간 증시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후 4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TSMC의 25년 1Q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된 것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전주대비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기계(+6.3%), 은행(+4.3%), 필수소비재(+4.1%)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반도체(-0.8%), 화학(-0.5%), 에너지(-0.1%)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 우려 발언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하락 마감

S&P 500 지수는 전주대비 -1.50% 하락한 5,282.7pt를 기록하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주대비 -2.66% 하락한 39,142.23pt를 기록하였다. NASDAQ은 전주대비 -2.62% 하락한 16,286.45pt를 기록하였다. 금주 미국 증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전자제품, 태양광 소재 등에서 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초반 상승세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발언이 잠잠해지고 미-일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미 증시의 상승세를 지지했다. 하지만 3월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선제적 소비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어 향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미 연방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는 소식에 미국 반도체 섹터가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아 미 증시는 결국 하락 전환하였다.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을 확인한 점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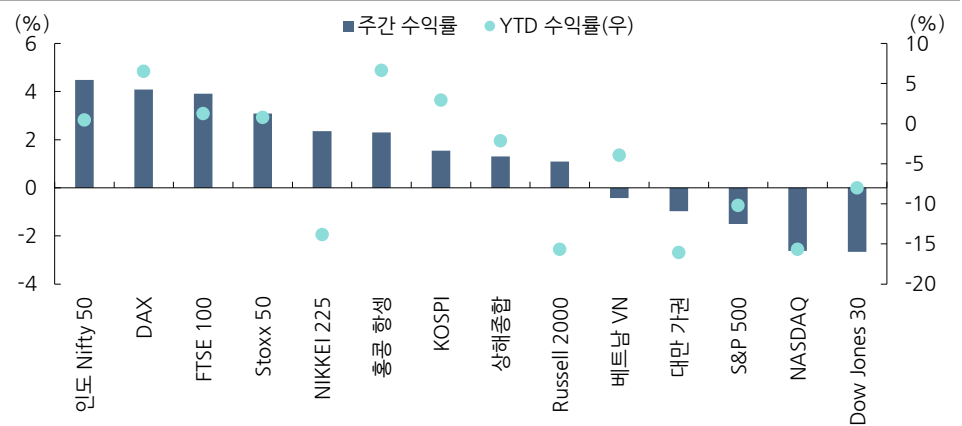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부동산(+4.0%), 에너지(+3.2%), 제약/바이오(+3.0%)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반도체(-6.7%), 헬스케어(-6.0%), 유통(-4.4%) 등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중국 증시는 관세 전쟁 여파에도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세 시현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1.30% 상승한 3,280.341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 지수는 전주대비 +2.30% 상승한 21,395.14pt를 기록하였다. 금주 중국 증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145%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후 관세율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주대비 상승세가 시현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3월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선전 종합 지수는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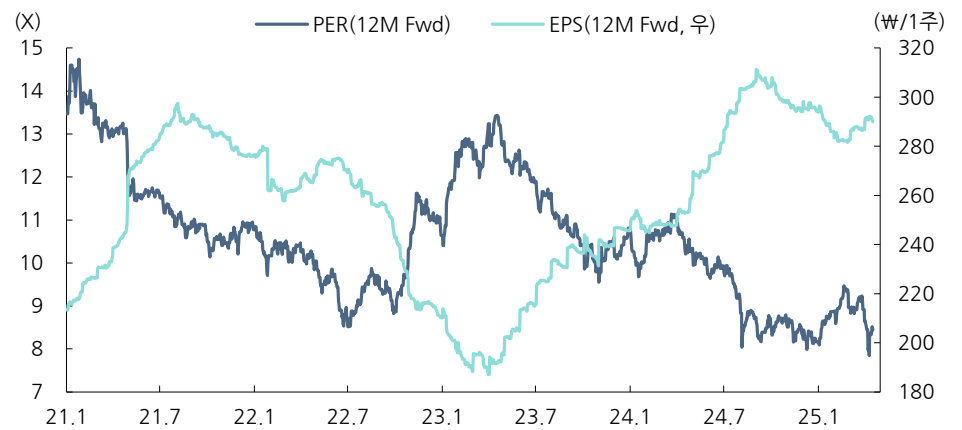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에너지(+3.2%), 금융(+2.4%), 유틸리티(+1.6%), 필수소비재(+1.5%)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경소비재(-0.9%), 정보기술(-0.3%)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그림 1.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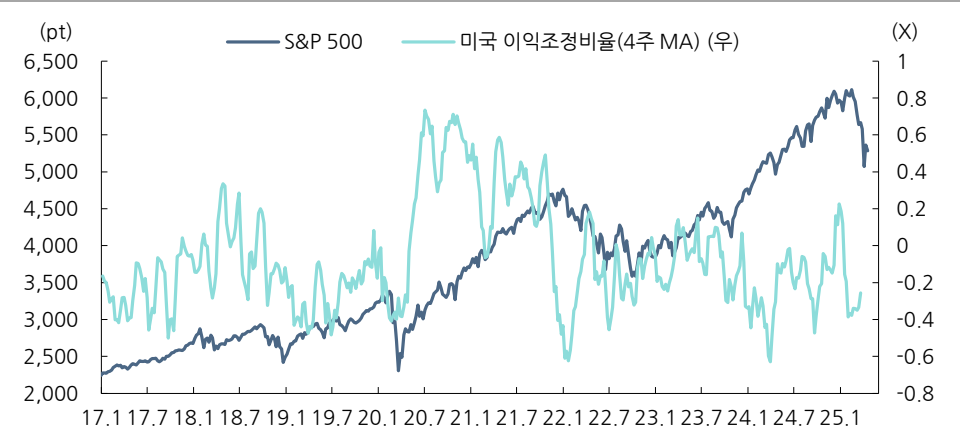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KOSPI 12M Fwd PER, EPS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관세 정책발 경기 둔화 소식이 영향을 미칠 글로벌 증시

차주 한국 증시는 5월 금리 인하 및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상승세 기대

•**Positive:**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전자제품, 태양광 소재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세한 점은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세를 야기하여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리고 TSMC의 25년 1Q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인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증시 내 비중이 큰 반도체 섹터의 투심이 회복된 것도 호재이다. 한편 한-일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진행되면서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것도 관련 수혜 테마들에 대한 상승 흐름을 기대한다.

•**Negative:**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시사하는 동시에 연준 꺾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증시의 투심을 위축시킬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관세정책의 여파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어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악재로 작용한다.

차주 국내 증시는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는 가운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관세 정책 완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시현할 것이다.

차주 미국 증시는 정책 수정 기대감에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전망

•**Positiv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주요국들에 대한 유예와 특정 품목에 대한 면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점은 증시에 있어서 관세 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우려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현재의 소프트웨어 부진인 하드 데이터로 전이될 경우, 이러한 정책 수정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Negative:**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와 연준 꺾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심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견조한 고용 지표에도 소프트웨어 데이터인 4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미국 제조업 업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은 투심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차주 미국 증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진행 및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부 실적 호재 기업들을 제외하고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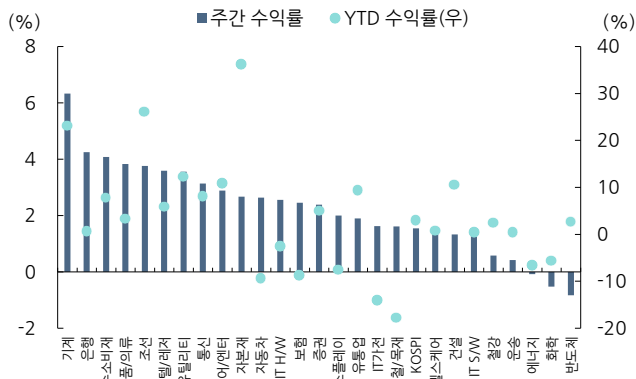
차주 중국 증시는 내수 부양책 효과에 상승세 전망

•**Positive:**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한 점은 호재로 인식된다. 특히 소매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 당국의 내수 진작 정책의 효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기술주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중국 소비재들의 상승세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이 추가 재정 확대 여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보다 확대될 수 있다.

•**Negative:** 중국의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3월 고정자산투자에서 민간, 건설업 분야의 투자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은 결국 현재의 경제 성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 세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내구재들은 이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은 중국 증시의 상단을 제한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악재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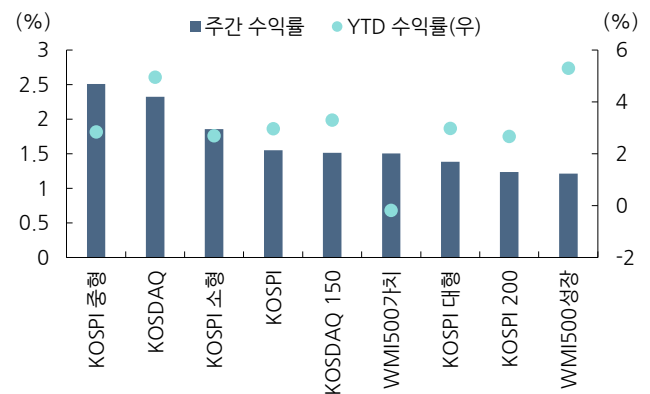
차주 중국 증시는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관측되면서 소비재들의 상승세로 인한 상승 흐름을 전망한다.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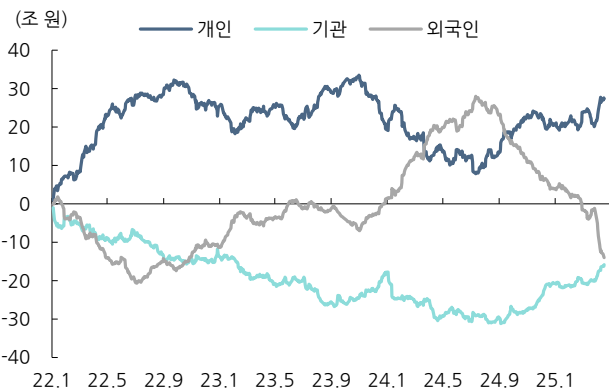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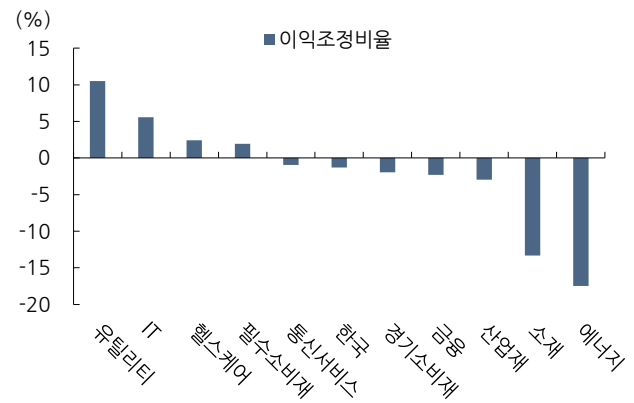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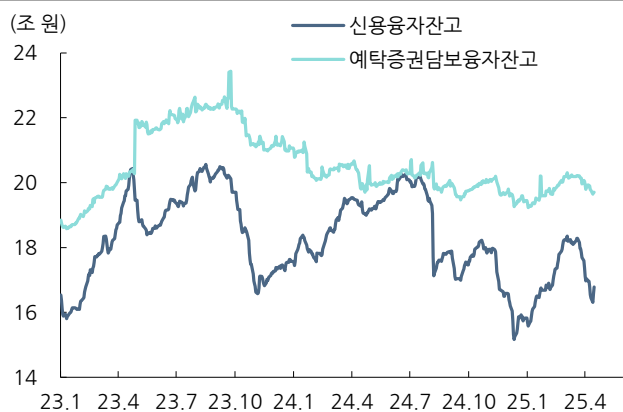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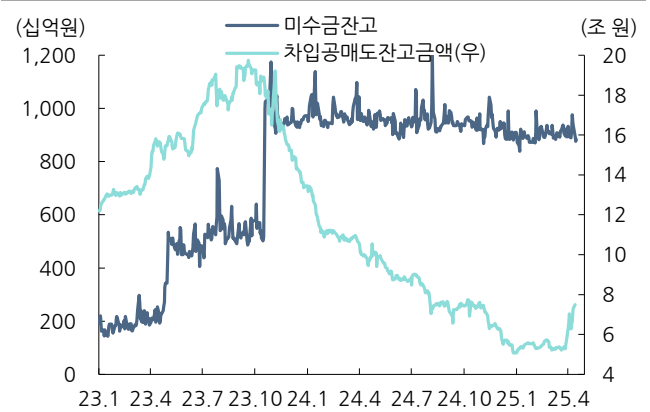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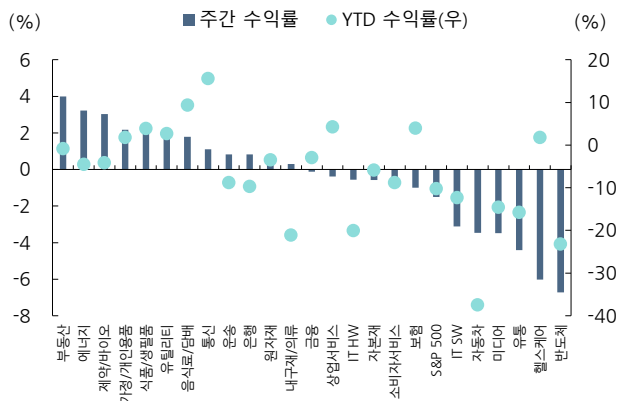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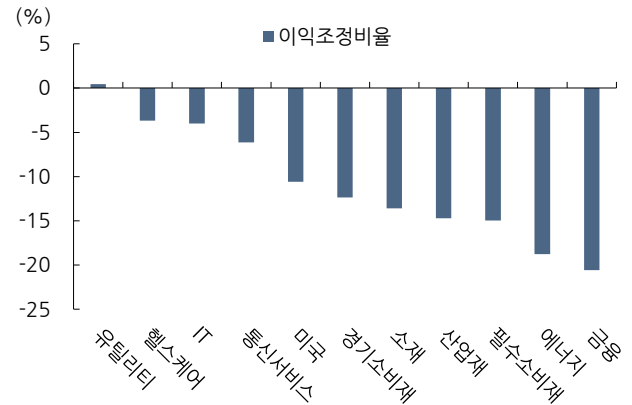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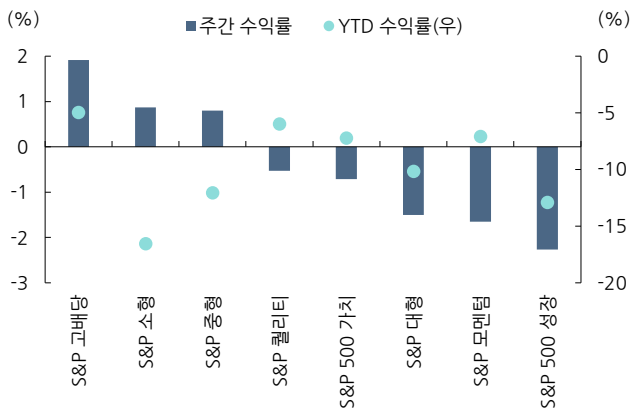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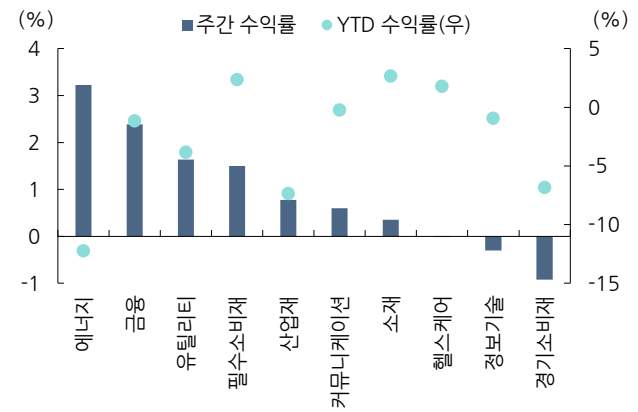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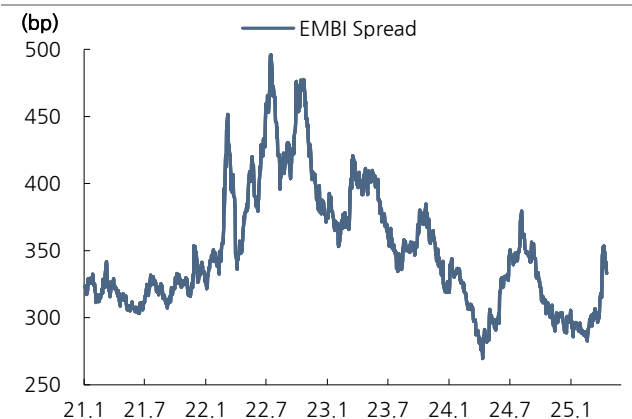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채권

국내 채권시장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 4월 금통위를 소화하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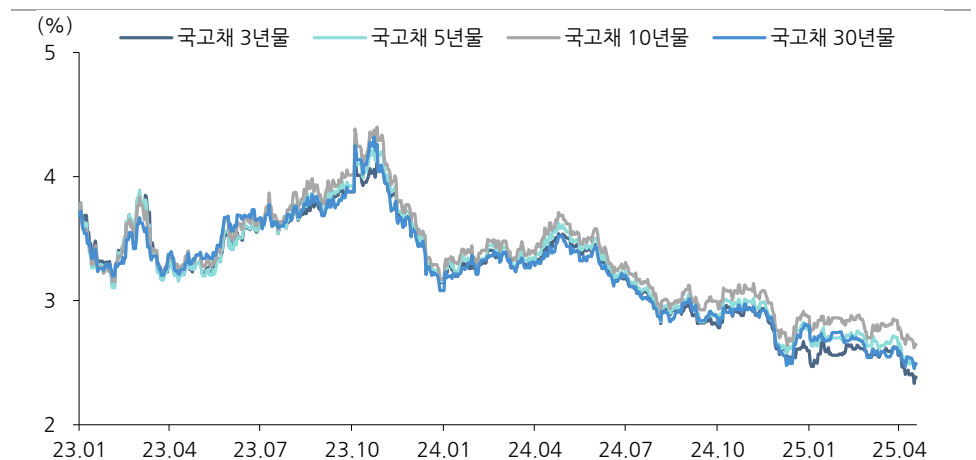
국채 금리 급등세는 진정, 경기 우려는 지속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부 국고채 10년물 입찰을 앞두고 기재부의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증대 발표에 10년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중반부 관세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4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및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 중심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후반부 4월 금통위를 무난하게 소화한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치를 못미치며 채권시장은 약세장을 시현했다.

미 국채 시장 견조한 경제지표에도 관세발 경기 우려는 지속되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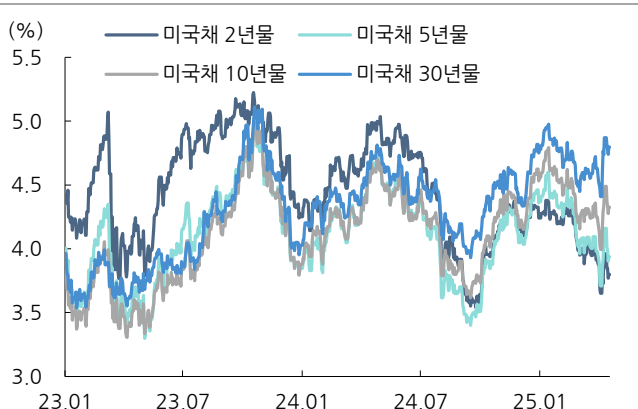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부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전주 금리 급등에 따른 되돌림세가 이어지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중반부 베센트 재무장관의 국채 추가 매입 시사 발언이 작용,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증대되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후반부 견조한 소매판매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연준 풋 기대 축소 발언 이후 관세발 경기 우려를 반영하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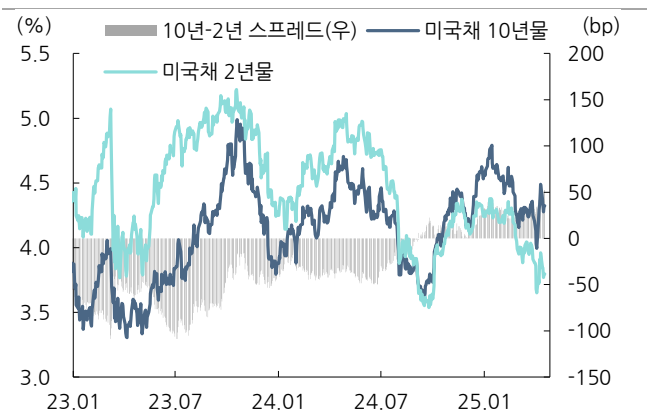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달린 후에는 쉬어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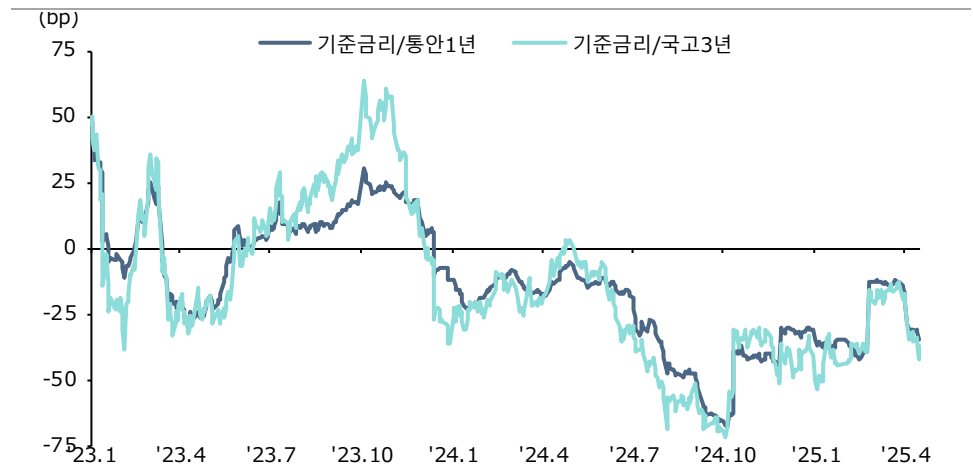
차주 국내채권시장 보험세 전망

차주 국내 채권시장은 보험세를 예상한다. 단기채 금리의 추가 하락은 가능하나, 중장기물 금리의 횡보 가능성이 높겠다. 4월 금통위는 현 수준의 기준금리 2.75%를 유지기로 했다. 그럼에도 3개월 내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금통위원이 동의를 했고, 신성환 위원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함을 확인했다. 국고 2년 이내 단기채 금리의 하락을 지지하는 대목이다. 동 구간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후행적으로 국고 금리를 따라갈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채 이외 구간의 금리 횡보 예상
미 국채의 안정적 흐름 대기 필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재정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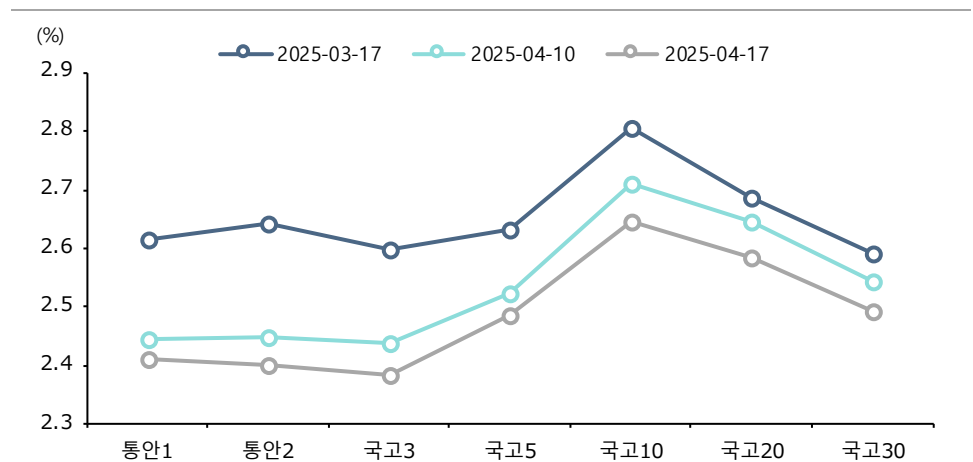
반면, 2년 이상 구간에서는 최근 강세장의 되돌림 압력과 미 국채 연동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외인의 국선 매수 압력이 완화되는 동시에 조기 대선에서의 재정 정책 민감도 또한 높아질 수 있기에 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미 국채 시장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해진다. 금주는 하락 전환에 성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존재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진행형이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 모멘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초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중이다. 향후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목이고, 채권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그림 4. 기준금리 대비 주요 구간 금리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요 만기물별 커브 추이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외환

약달러 지속 국면

미 달러화,
100pt 하회

미 달러화는 100pt를 하회한 주간이었다. 주 초반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우려를 반영하며 하락 출발했으나, 관세 협상 난항 우려와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으로 수요일에는 상승 반전하는 변동성을 보였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세 정책이 초래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엔화, 스위스프랑 등 여타 안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100pt를 하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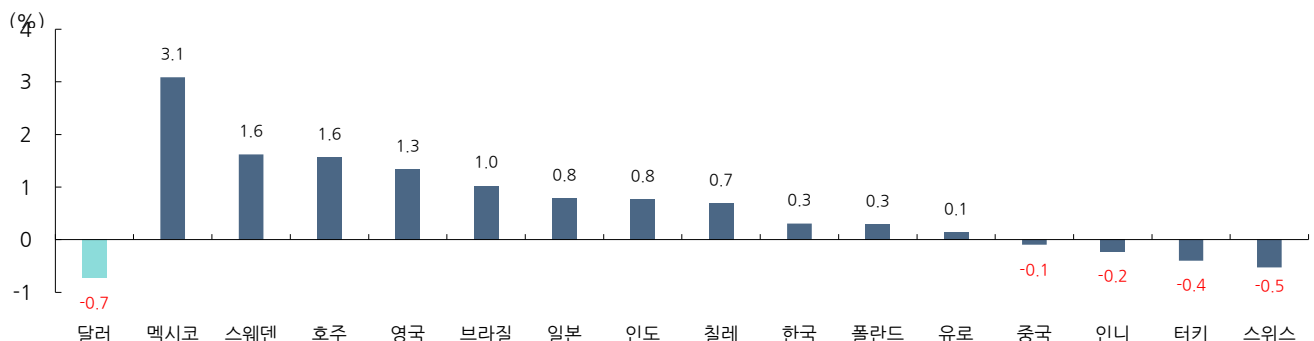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1,410원대 진입

달러 원 환율은 달러 환율은 주 초반 미국 관세 정책 방향성의 모호함과 달러화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연동되며 1,427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달러화 약세 흐름과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강세에 동조하며 큰 폭으로 하락 전환하여 1,415원대까지 내려오며 주간 기준으로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주 후반 금통위에서 예상된 금리 동결 결정이 나타났고 외환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엔화
142엔 수준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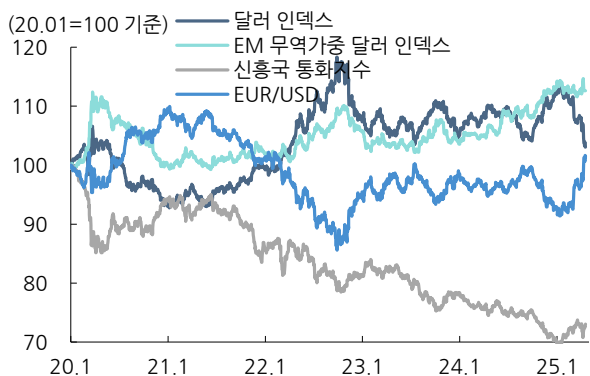
달러 엔 환율은 142엔 수준에서 주간 기준 통화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 관세 정책에 대한 번복속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 엔화는 강세 출발했다. 다만 주 후반 미일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엔화에 대해 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로 엔화 가치는 강세장이 시현되고 있다.

그림 1. 주간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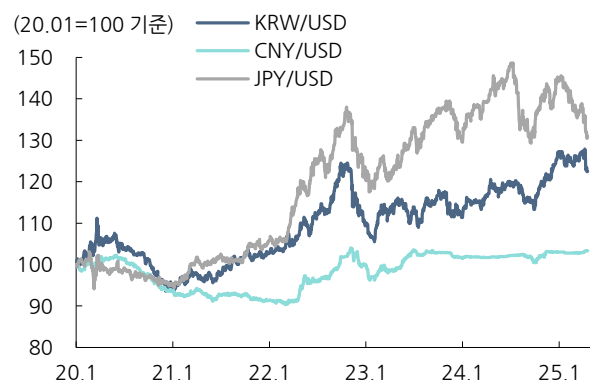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글로벌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아시아 통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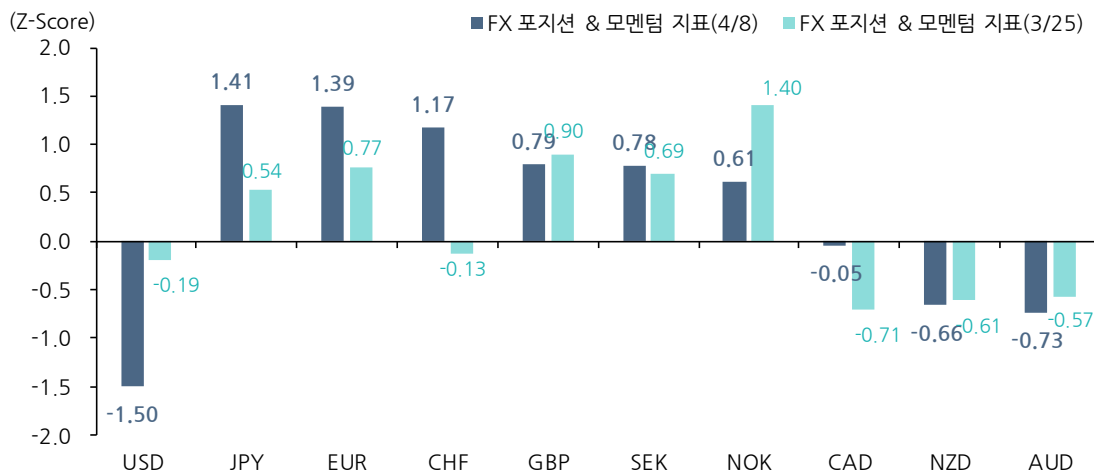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모멘텀 지표, 반등 변곡점 진입

차주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 이벤트는 부재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관세 영향력은 잔존한 구간이겠다. 최근 외환시장의 주요 통화 흐름을 살펴보면, 약달러에서 주요국 통화 가치 반등세가 확인된다. 주요 기축통화 위주로 모멘텀과 포지션 강도를 살펴보면, 미국 달러(USD)는 종합 지표와 세부 항목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과매도 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유로(EUR)와 일본 엔(JPY)은, 순 투기적 포지션에서도 강한 롱 베팅이 확인되었다. 호주 달러(AUD)와 뉴질랜드 달러(NZD)는 종합적으로 약세 신호가 우세하며,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노출도와, 원자재 통화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연동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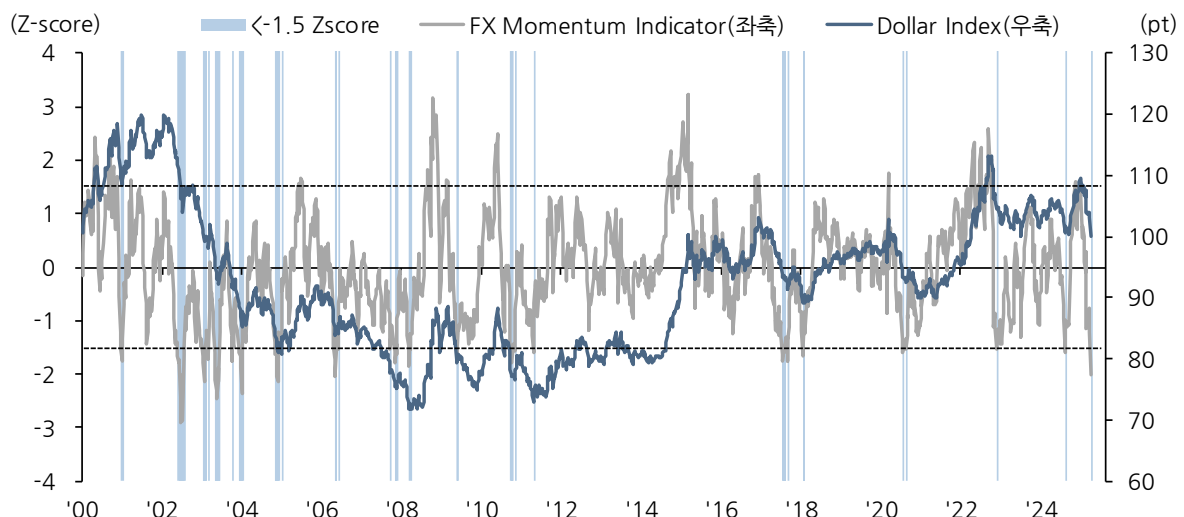
달러화 기준 모멘텀상 반등 임계치인 -1.5 Z-Score를 하회하였다. 역사적으로 -1.5표준편차 이하의 모멘텀 하에서는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달러 반등 변곡점이 확인되었다. 2024년 8월에도 달러 하락 국면에서 모멘텀 지표가 -1.59 Z-Score를 터치한 후 110pt까지 반등한 바 있다. 금번 달러 약세가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된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그림 4. 주요 기축통화별 포지션 & 모멘텀 종합 지표 비교



자료: Bloomberg,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US 모멘텀 지표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4. 원자재

약달러 영향으로 전반적 원자재 강세

국제유가,
60달러 초반 상승세

WTI 가격은 상승 마감했다. 유가는 주 초반 OPEC과 IEA의 연이은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심화 및 미국의 대이란 제재 관련 소식에 따른 공급 불안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 후반 반등에 성공하여 배럴당 62달러 중후반 수준에서 마감하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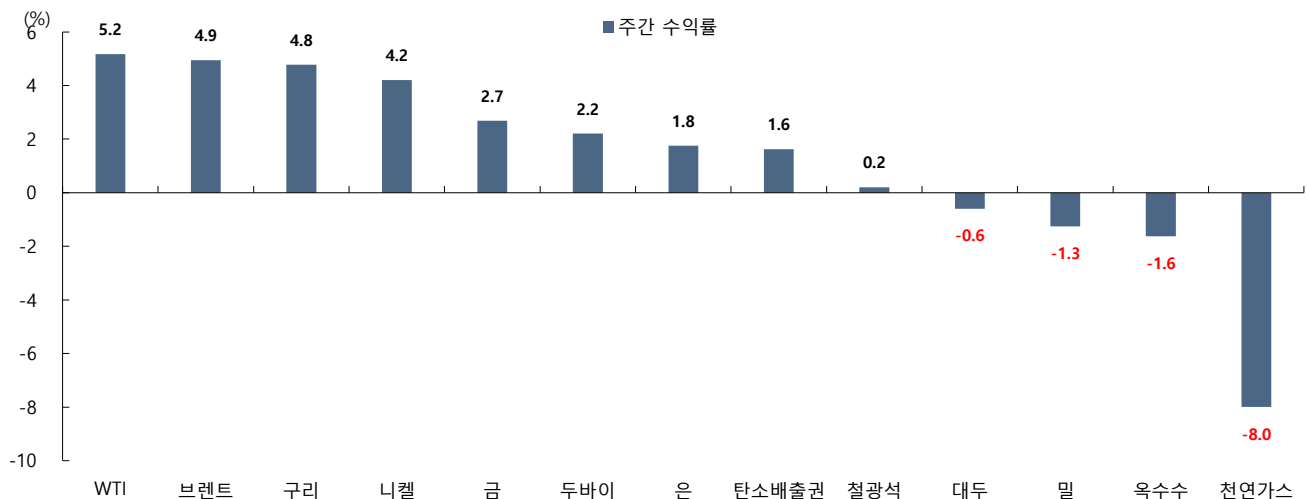
금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금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주 초반 관세 우려 완화 기대감과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국채 금리 하락과 지속되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며 빠르게 반등했다. 특히 주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경고 발언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이 동반되면서 금등세를 보이며 온스당 3,300달러를 상회하며 강하게 마감했다.

산업금속,
달러 약세에 회복세

산업금속 가격은 전주대비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으로 낙폭이 컸던 산업금속 가격은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일정부분 회복하면서 가격 반등세가 시현되었다.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 기조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지한다. 주 중반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소식 또한 비철금속 가격의 하단을 지지했다.

그림 1. 주요 원자재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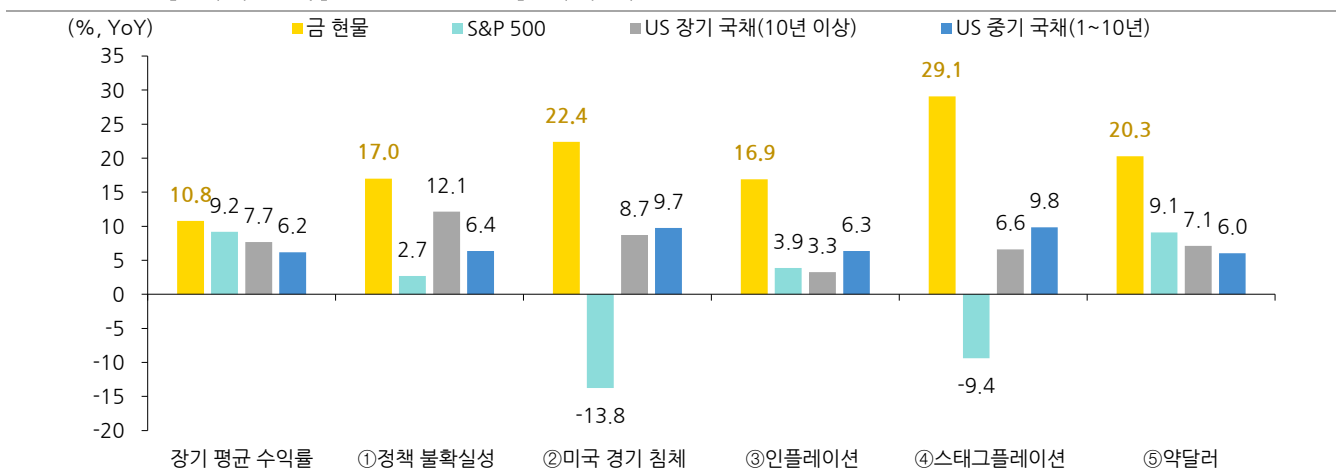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만연한 리스크 국면, 대안이 되는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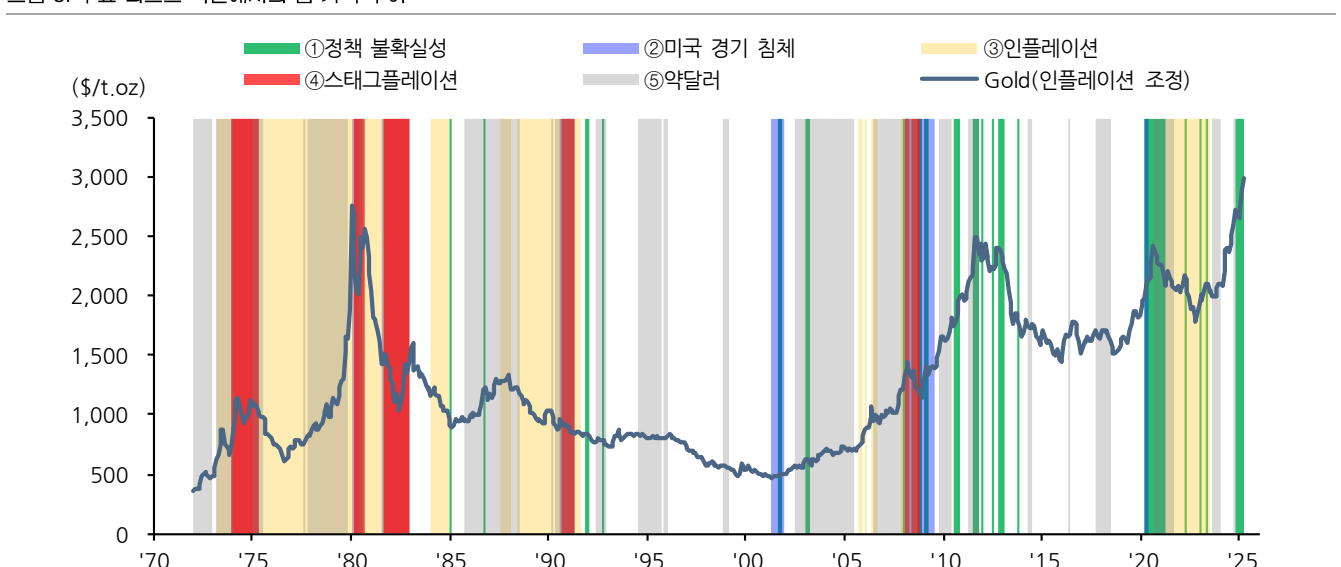
현재 시장이 우려 중인 것은 ① 관세戰 정책 불확실성, ②경기 침체, ③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들이 합쳐진 ④스태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⑤미 달러화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 등이 있다. 금은 시장을 지배 중인 거의 모든 리스크를 헤지 가능하다. 1972년 이후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금 가격은 시장이 우려하는 주요 리스크 국면에서 일관되게 타 자산(주식, 채권) 대비 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그림 2).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S&P 500이나, 인플레이션 시기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인 미국 국채 총수익지수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결과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헤지 수단 중 하나였으며, 불확실성이 높은 현 국면에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림 2. 자산별 월평균 수익률과 특정 리스크 시기에서의 평균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장기 평균 수익률: 1972.01~2025.03 기간 동안 자산별 월평균 가치의 전년대비 증감률. ①정책 불확실성: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가 장기 평균+1σ(170.1pt) 상회한 기간(1985.01~). ②미국 경기 침체: NBER 기준 미국 경기 침체 기간. ③인플레이션: US Headline CPI가 전년대비 4%를 상회한 기간. ④스태그플레이션: NBER 기준 미국 경기 침체 기간이면서 US Headline CPI가 4%(YoY)를 상회한 기간. ⑤약달러: Dollar Index 기준 전년대비 3% 이상 하락한 기간

그림 3. 주요 리스크 국면에서의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5. 부동산

돌고 돌아 재건축 추진 단지가 이끄는 매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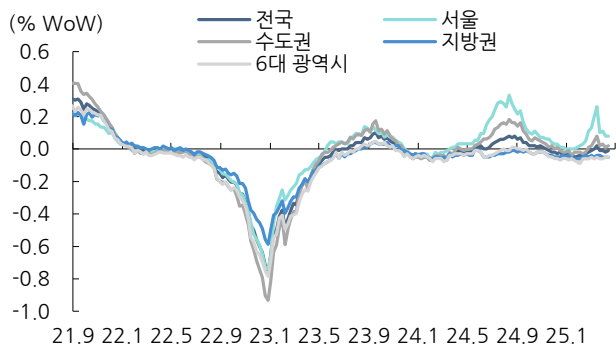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온도 차이 부각

4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대비 -0.01%를 기록했다. 이전 -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전세 가격지수는 금주 0.00%를 기록하면서 다시 이전 +0.00% 대비 보합세가 유지되었다. 서울, 수도권 지역 내 재건축 예정 단지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 내 열세 단지에서는 매물이 적체되고 관망 심리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 전반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갈리는 구축과 신축 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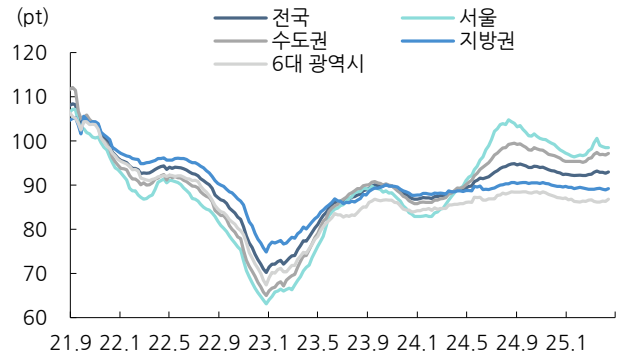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67개를 기록하며 전주 61개 지역 수 대비 증가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04%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세종시 전체도 상승 전환했다. 한편 강북(+0.06%)의 경우 중랑(-0.02%) 내 구축 위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성동(+0.23%), 용산(+0.14%), 마포(+0.13%), 종로(+0.12%) 등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내 매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10%)은 동작(+0.16%), 서초(+0.16%), 강남(+0.16%) 내 준신축 혹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위주로 상승하면서 전주대비 상승세가 지속됐다. 인천(-0.01%)의 경우 미추홀(+0.06%), 부평(+0.05%)등에서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연수(-0.11%), 남동(-0.08%), 계양(-0.01%) 등의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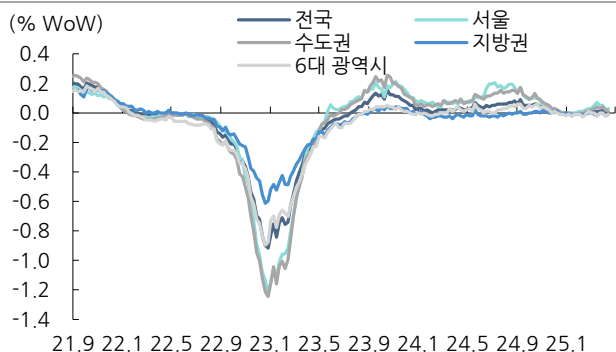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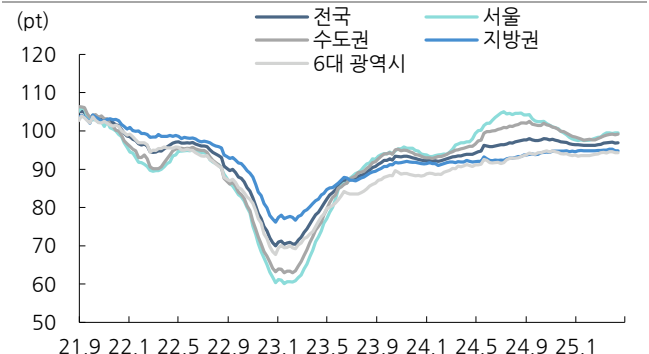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6. ETF

금주 ETF 시장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미국 반도체 테마 ETF 부진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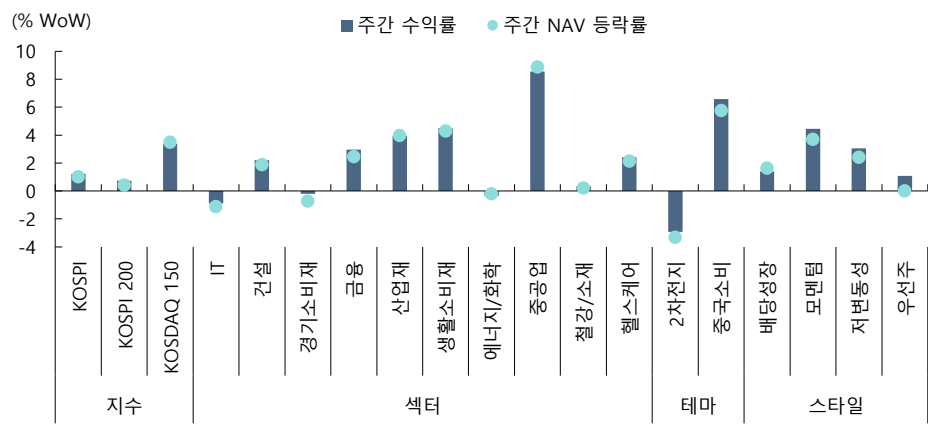
차주 ETF 시장은 미국 관세 정책 완화 수혜 테마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

상호 관세 면제를 받은 섹터/테마 ETF들에 주목할 시간

금주 국내 ETF 시장은 미국 연방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것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RISE 미국반도체NYSE(-9.40%),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8.92%), SOL 미국AI반도체칩메이커(-8.78%) 등 미국 반도체 관련 ETF들이 전주대비 하락하였다. 반면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지 투자나 비미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성장이 기대되면서 TIGER K방산&우주(+11.14%), PLUS K방산(+10.12%), SOL K방산(+10.01%) 방산 테마 ETF들이 동반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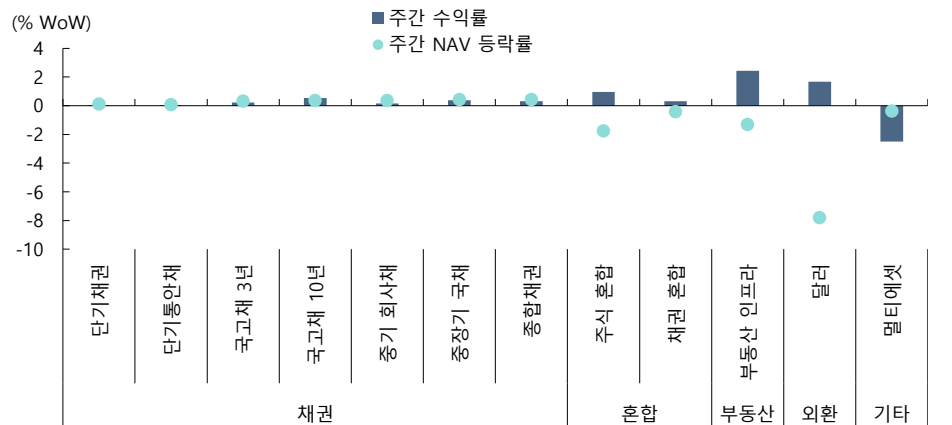
차주 국내 ETF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되었거나 향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특히 부품쪽), 태양광 테마 ETF들이 한동안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SOL 자동차소부장Fn(464600), PLUS 태양광&ESS(457990), TIGER Fn신재생에너지(377990) 등이 차주에도 상승 흐름을 시현할 것이다. 한편 미-중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인도 증시에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TIGER 인도니프티50(453870), ACE 인도컨슈머파워워티브(487910)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주간 수익률, NAV 변화율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내 상장 FICC ETF 주간 수익률, NAV 변화율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1. 미국 상장 대표 주식 ETF 주간 수익률

구분	항목(티커)	AUM (십억 달러)	수익률(%)				유입액(백만 달러)			
			1W	1M	3M	YTD	1W	1M	3M	YTD
대표 지수	S&P 500(SPY)	547.94	0.35	-6.90	-11.64	-9.91	-4,807.4	-18,668.7	-14,968.9	-14,883.1
	다우 30(DIA)	34.58	-1.04	-6.42	-9.62	-7.63	-546.3	-638.9	-73.0	-282.4
	NASDAQ(QQQ)	284.12	-0.47	-7.88	-14.76	-13.00	-703.5	5,085.6	8,385.0	7,712.7
	러셀 1000(IWB)	35.86	0.40	-6.97	-12.06	-10.08	-31.6	1,258.8	307.1	-242.7
사이즈	대형주(MGK)	21.27	-0.75	-7.16	-15.59	-14.73	22.5	25.8	-128.1	79.1
	중형주(IJH)	83.21	2.18	-7.53	-14.99	-11.73	135.9	197.6	332.3	603.6
	소형주(IWM)	10.27	3.01	-8.96	-15.83	-14.40	34.3	278.8	-24.9	-550.5
스타일	성장(SPYG)	29.04	-0.39	-6.89	-14.69	-12.76	42.9	135.2	-887.1	-577.8
	가치(SPYV)	23.67	0.98	-6.73	-8.27	-6.71	138.2	388.7	797.8	946.0
	우선(PFFD)	2.25	1.16	-5.24	-5.71	-4.26	-0.8	60.9	81.2	54.8
	배당성장(SCHD)	64.86	1.80	-8.27	-8.37	-6.12	-11.2	2,210.0	4,337.5	5,015.4
섹터	테크(XLK)	60.06	-0.78	-10.32	-17.48	-16.91	374.4	-95.6	-732.5	-671.5
	필수소비재(XLF)	47.62	1.61	-4.63	-6.80	-3.13	812.8	-1,534.7	464.1	1,394.0
	유틸리티(XLU)	17.30	3.14	-1.11	-0.66	3.48	196.1	-41.5	301.2	674.1
	원자재(XLB)	4.80	3.29	-6.81	-8.15	-3.58	15.5	-246.5	451.9	-398.9
	커뮤니케이션(XLC)	18.87	-0.32	-6.99	-7.10	-6.55	95.9	-186.0	21.0	353.0
	산업재(XLI)	18.24	1.47	-5.46	-8.76	-4.62	-10.7	-831.8	-995.4	-1,284.2
	경기소비재(XLY)	18.00	-1.33	-5.64	-18.90	-17.14	96.4	-1,079.8	-1,043.5	-874.6
	에너지(XLE)	26.47	5.87	-9.94	-12.59	-4.12	-285.6	-2,422.0	-4,377.6	-5,074.5
	헬스케어(XLV)	35.30	0.44	-7.33	-2.97	-1.13	136.4	-771.4	-798.4	-780.1
	금융(XLF)	47.62	1.61	-4.63	-6.80	-3.13	812.8	-1,534.7	464.1	1,394.0
	부동산(VNQ)	32.42	5.11	-4.33	-2.13	-1.50	4.4	-466.2	-453.1	-488.1
지역	전세계(VT)	40.47	2.13	-5.98	-6.64	-5.05	446.9	1,534.7	913.5	1,015.0
	선진국(VEA)	142.39	5.53	-3.47	4.97	6.62	1.3	1,177.1	2,188.5	2,588.9
	신흥국(VWO)	77.86	3.24	-7.21	-1.04	-1.58	2.3	80.7	566.7	573.5
	미국(VTI)	417.59	0.51	-7.02	-12.33	-10.40	741.9	4,357.1	9,030.6	11,677.9
	중국(MCHI)	5.25	2.73	-15.96	6.67	5.19	-188.7	-376.1	22.8	-363.8
테마	AI(CHAT)	0.22	-0.49	-13.79	-22.81	-19.35	0.0	-6.1	41.0	53.6
	클라우드(SKYY)	2.84	-0.53	-12.25	-21.98	-19.95	0.0	-88.8	-20.5	-57.5
	로봇(BOTZ)	2.17	1.10	-13.80	-19.41	-16.68	0.0	-55.0	25.1	41.6
	2 차전지(BATT)	0.05	5.10	-13.21	-14.93	-11.93	0.0	-1.3	-5.3	-6.7
	태양광(TAN)	0.63	5.47	-16.04	-18.12	-14.98	-11.1	-35.3	-53.6	-39.3
	방위산업(ITA)	6.10	1.68	-2.37	-1.20	3.06	0.1	-24.6	-299.9	-265.3
	반도체(SOXX)	10.17	-1.22	-18.43	-27.41	-22.61	264.9	402.6	-667.7	-878.6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미국 상장 대표 FICC ETF 주간 수익률

자산	항목(티커)	AUM (십억 달러)	수익률(%)				유입액(백만 달러)			
			1W	1M	3M	YTD	1W	1M	3M	YTD
채권	채권통합(AGG)	122.91	0.75	-0.22	1.96	1.98	-18.2	-1,113.6	1,267.6	1,751.9
	국채(GOVT)	27.12	0.53	0.20	2.47	0.13	97.2	-172.5	-2,735.9	-2,659.5
	지방채(SCMB)	0.65	0.73	-1.96	-1.49	-1.99	14.9	116.2	152.1	182.8
	물가연동(TIP)	13.88	1.02	0.26	2.38	2.98	-249.2	-387.7	308.1	-56.0
	회사채(LQD)	29.20	1.43	-0.93	1.10	1.04	-204.4	-815.0	-33.3	172.7
	투자등급(VCIT)	51.50	1.14	-0.15	1.78	1.73	-7.7	929.7	3,248.3	2,642.0
	하이일드(JNK)	5.73	1.68	-1.40	-1.20	-0.19	-260.4	-1,814.7	-1,535.5	-1,917.4
	신흥국(EMB)	12.44	2.01	-1.94	0.17	1.09	-307.3	-1,082.4	-982.0	-1,286.4
	월배당(BND)	126.46	0.76	-0.22	1.94	1.99	-128.7	-235.6	3,224.0	4,079.7
	미국채 30년 3X(TMFB)	4.59	3.52	-10.55	-0.04	-1.51	63.2	-295.5	-988.6	-742.4
	미국채 커버드콜(TLTW)	1.02	1.71	-2.25	2.53	2.49	-6.9	-74.3	61.8	60.7
	장기채 월배당(TLT)	48.50	1.28	-3.07	1.42	1.26	14.2	-1,372.0	-3,648.5	-2,585.4
	장기채 제로쿠폰 (EDV)	3.43	2.14	-5.51	0.12	-0.99	11.8	-264.6	-286.6	-158.8
원자재	원자재 통합(COMT)	0.63	4.14	-2.90	-5.73	-0.63	2.5	-26.3	-43.0	-37.9
	귀금속(GLDR)	101.19	4.71	10.62	22.81	26.43	786.4	5,018.3	7,861.1	8,441.8
	산업 금속(PICK)	0.69	5.66	-10.57	-6.36	-2.83	5.1	1.3	-54.9	-58.5
	원유(USO)	0.99	6.37	-4.44	-15.80	-8.03	46.4	206.0	105.3	-11.6
	농작물(DBA)	0.80	3.45	-0.78	0.19	0.23	0.0	-32.7	-12.1	19.5
외환	USD(UUP)	0.24	-1.44	-3.47	-8.14	-7.21	4.1	-79.2	-367.3	-160.2
기타	주식 혼합(AOR)	2.25	1.25	-3.60	-3.10	-2.41	25.1	104.9	-67.1	-127.1
	채권 혼합(AOM)	1.44	1.66	-2.20	-1.35	-0.73	10.7	45.3	-23.0	-59.8
	변동성(UVXY)	0.26	-15.17	58.45	83.64	71.14	40.0	-170.6	-440.6	-368.9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7.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만 강조하는 이유 : 만트라 폭락 사태

4월 14일, 시가총액 8조원에 달하던
만트라 코인 가격 90% 급락

만트라(OM)는 원래 시가총액이 8.2조에 달하는 RWA 시가총액 19위의 암호화폐였다. 하지만 4월 14일 새벽, 단 1시간 만에 가격이 6달러에서 0.6달러로 90% 이상 폭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4월 7일부터 14일 사이 다수의 익명 주소를 통해 OKX 거래소에 만트라 토큰 4,100만개(당시 가치 2.5~3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시장가로 일괄 매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바이낸스 계정에서 익명 지갑을 거쳐 OKX 거래소로 소량씩 여러 차례 분산 이전하는 치밀한 방식을 보였고, 사태 직전에는 잔여 물량을 바이낸스로 되돌려 가격 붕괴를 촉발했다.

개발팀이 최근 내부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발행물량 90%를
보유하게 된 코인.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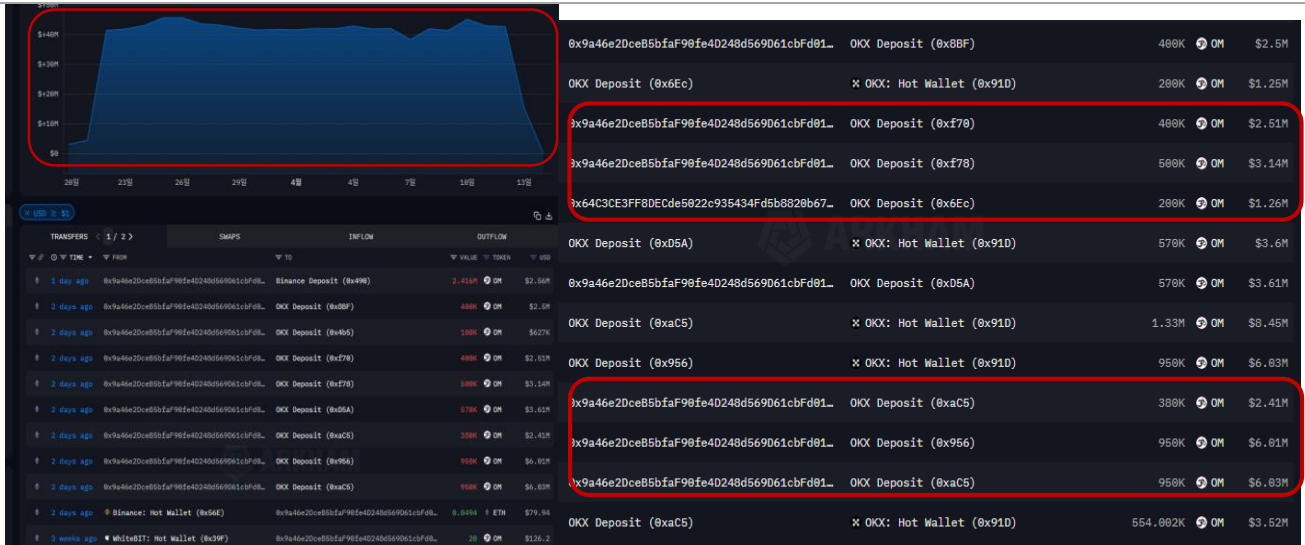
주된 원인으로는 개발팀이 전체 발행량의 90%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상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2024년 10월 이후 급등한 가격을 노려 자금을 빼돌린 러그풀(Rug Pull)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중 유통량이 5% 미만인 상황에서 개발팀의 책임 회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코인 펀드 Laser Digital이 사태 발생 전 시장에 매도된 물량 중 392만개를 처분해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만트라 측은 공식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RWA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하락'이라며 러그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개발자 물량 절반을 소각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지는 못한 모양새다.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해당 토큰의 1월부터 공급량 증가와 높은 레버리지 수준을 언급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왔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규모 매도세가 집중된 OKX 거래소의 CEO는 이번 사태를 "암호화폐 업계의 중대한 스캔들"로 규정하면서도 자사는 이와 무관하며 거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은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손실을 회복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내거래소 대부분 비상장, 한국은
루나와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는
빚겨나갔으나, 알트코인 시가총액
허실을 드러낸 상황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미상장된 코인이라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는 제한적이어서 과거 루나 사태만큼 큰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으나,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코인도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적 규제나 투명성 개선 없이 가격만 상승한 수천~수십조에 달하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의 허실을 드러낸 사태다. 현재 알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4월 기준 약 1,400조 수준이며, 시총 100위권은 현재 7조원 이상이다. 코인 열풍이 정점이었던 1월 20일경에는 알트코인 총액이 2,200조에 달해 비트코인 현 시총과 비슷한 규모였다.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알트코인은 트레이딩 기회와 대박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호되지만, 이러한 "일확천금" 기대는 주로 유동성이 충분하고 상승세에 익숙해질 때 매수를 시작하면 고점인 경우가 많다.

기관 자금이 부족하고 일부 세력(개발팀, 거래소, 벤처캐피탈 등)의 가격 조작에 취약한 알트코인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더라도 개발팀이 코드 수정 권한, 초기물량 대량 확보 등 핵심 이점을 유지하는 한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만트라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도 실제 사용 사례 구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며 화려한 기술혁신과 비전에 비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림 1. 만트라 전송 내역: 익명의 지갑 여러 개에서 OKX 거래소로 만트라 대량 분할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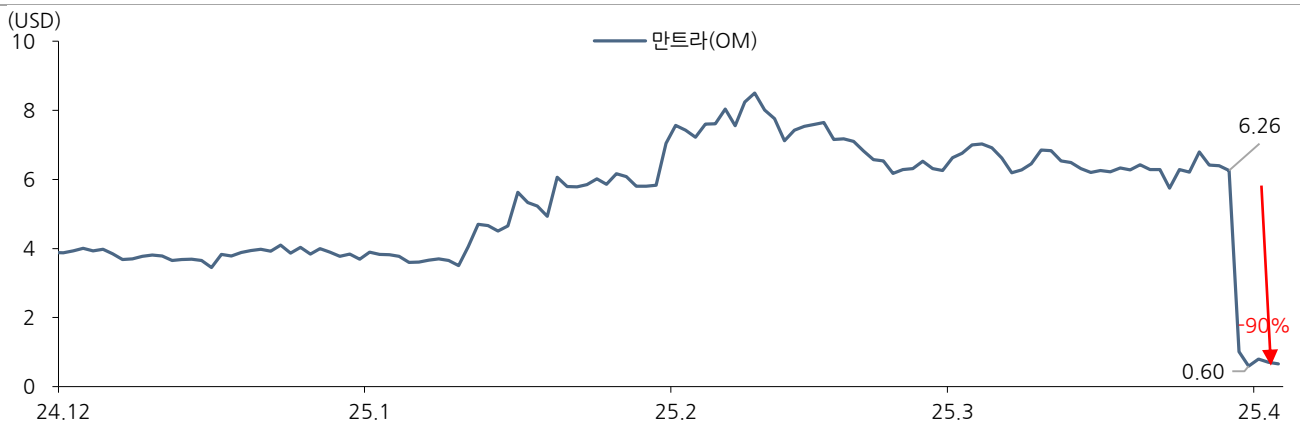


익명지갑 보유량 추이: 만트라(OM) 대량
입금 후 다시 OKX로 전송->추적 방지

사건 발생 전 OKX(거래소)로 3일에 걸쳐 다수 익명
지갑에서 대량의 만트라 분할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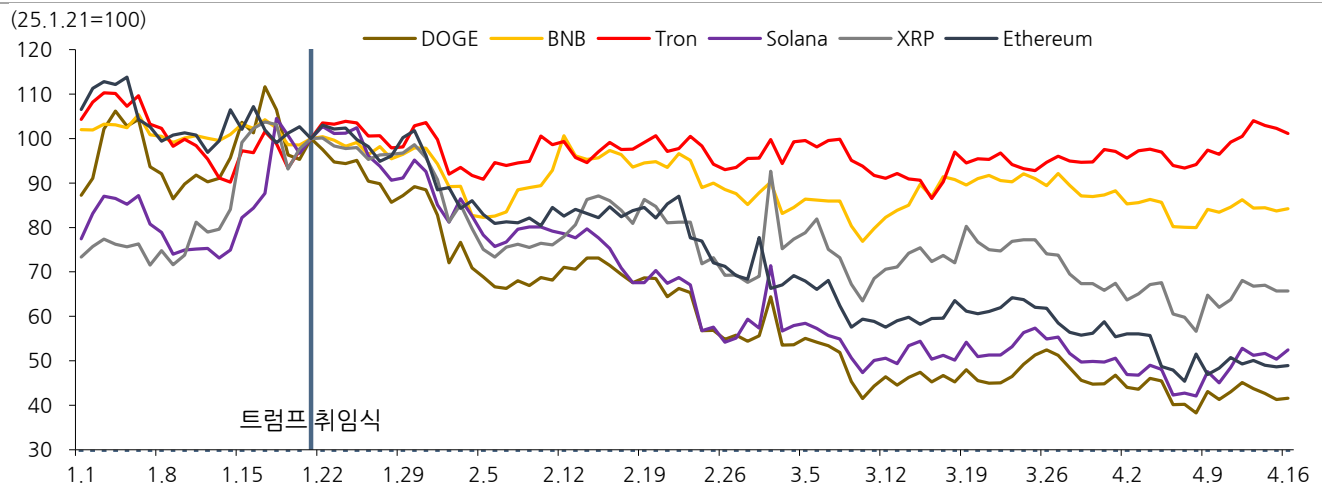
자료: Arkham,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만트라 가격 추이. 1~3월 조정장에도 견조한 가격 흐름을 기록했으나 하루 만에 시가총액 90% 증발



자료: Blockchain.com,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트럼프 취임 이후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 Blockchain.com,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비트코인, 바닥 구간은 다졌으나, 매크로 반등 재료가 절실

미 정부, 비트코인 전략자산고 설립
& 향후 100만개 이상 매입계획
진행 예정. 시기&방식에는 토의
필요

정책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정체, 그러나 OTC 잔고 하락
및 매도 압력은 감소. 추세 전환에는
ETF발 매수세 복귀 필요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자산군은 ETF 승인으로 자산배분이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되었고, 규모가 워낙 커져 단일 주체가 가격을 조작하거나 내부 프로토콜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속도, 기술력, 비용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투자가치가 확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백악관 디지털 자산 & 암호화폐 담당 보 하인즈는 16일 트럼프 정부 시절 비트코인을 "디지털 Fort Knox(금 보유고)"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며,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금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며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했다.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비트코인 강국 건설 구상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및 규제 마련이 대중의 예상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언급했다. 현재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환수 자금으로 비트코인 20만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올해는 추가 매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임기 동안 100만개 확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의 기존 금융시스템 연계, 범죄 및 자금세탁, 탈세 방지, 국제 디지털자산 경쟁력 확보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제안으로 "관세 및 기부금"을 활용한 비트코인 구매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비트코인 산업 생태계(채굴업, 거래소, 핀테크 등)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형 투자자들(고래)은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하락 중인 증시가 반등해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유입되며 가격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 관련 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법안 진전에 힘입은 미국 정부의 직접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전까지는 ETF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세 회복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주식 시장으로 남은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암호화폐 참모 Bo Hines, 트럼프 내각의 비트코인 관점 및 계획 유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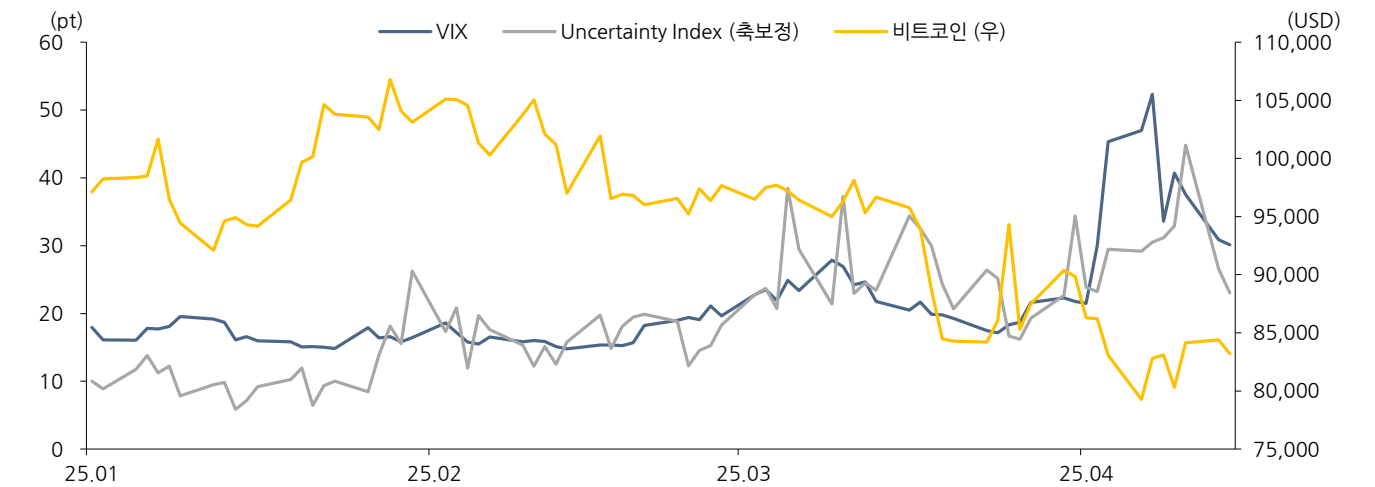


“2025년은 이미 보유한
20만개 코인 유지”

“향후 5년간 비트코인
100만개 확보 계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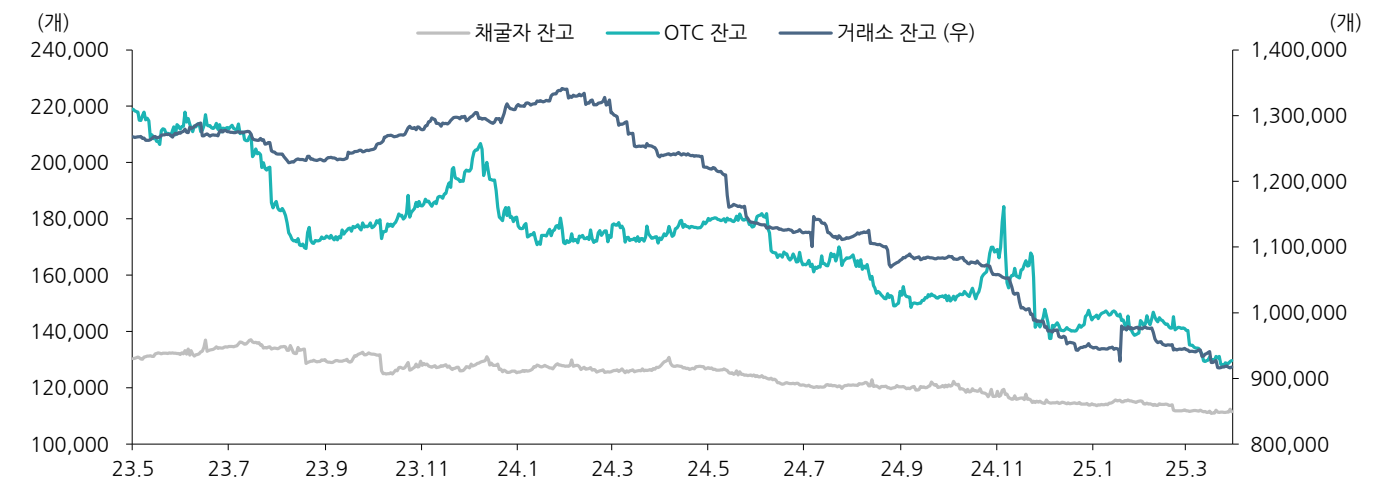
“Digital Fort Knox:
금처럼 장기우상향 전망

그림 5. VIX, Uncertainty index 와 비트코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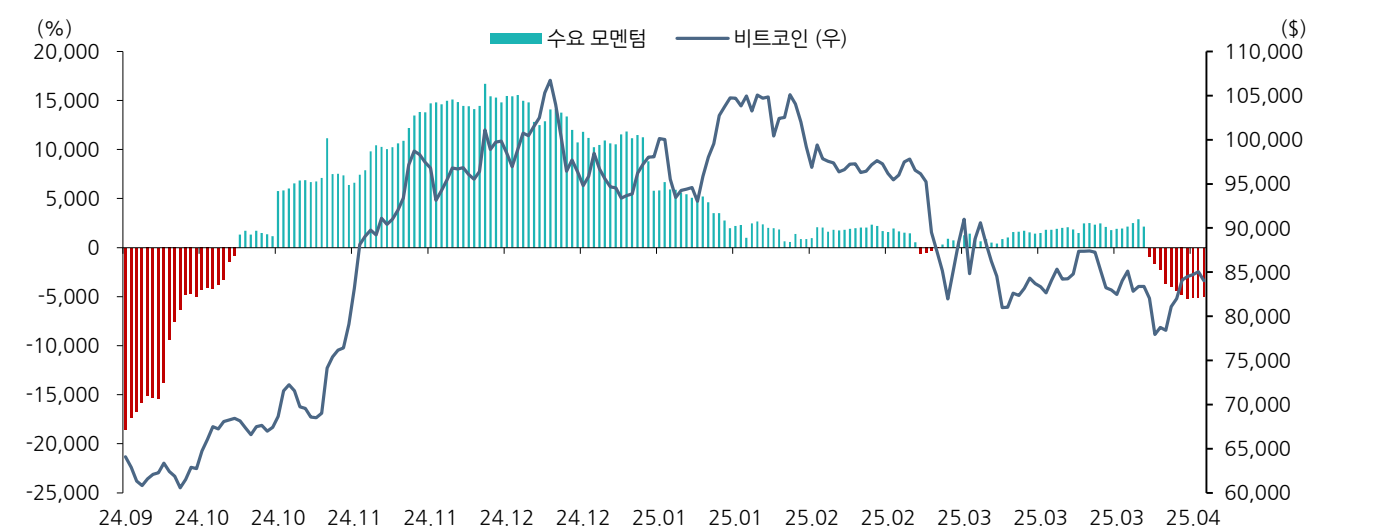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역대 최저치를 찍으며 바닥을 보이고 있는 OTC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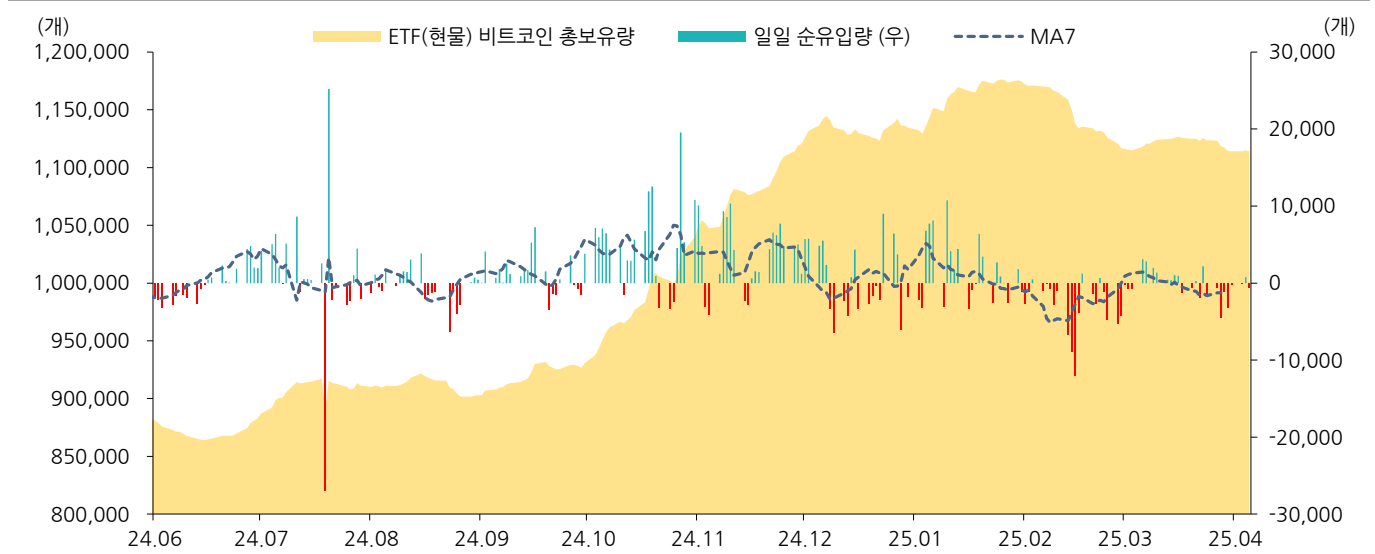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단기적으로 반등에서 하락 가속도는 둔화, 그러나 추세 전환은 아직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주 원인은 ETF 잔고 정체. 추가 유동성이 들어오기에는 증시 회복이 선결과제



자료: Blockchain.com,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열, 황준호, 최예찬, 김경태)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